



한우미당

제 21권 제11호(통권 168호)

2020년 11월 25일 발행

<비매품>

발행인 김홍길

인쇄처 팜커뮤니케이션

발행처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주 소 서울시 서초 서초1동

1621-19 제2축산회관 2층

전 화 (02) 525-1053

(02) 597-2377

팩 스 (02) 525-1054

이메일 025251053@daum.net

등록번호 서초라 11499

vol. **168** 2020.11.
Hanwoo Journal

contents

현장스케치

- 44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 45 “전국한우협회 회원 모두의 훈장”

특집 |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 48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연내 추진 가닥
- 51 “한우농가, 암소 비육 기술에도 관심 가질 때”
- 55 [방역특집] 축사 세척·소독 실시 요령

시선집중

- 58 한우동향분석
- 70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은?
- 76 축산분야, 공약형 직불제 도입될까?

사양·컨설팅

- 81 전국한우농가 영농승계 실태조사
“영농자금 지원 절실”
- 86 한우사육 100문100답 _ 국립축산과학원
- 90 기초에 충실한 컨설팅으로 생산성 향상된 2세 경영농장

소식·정보

- 95 소식·정보
- 108 업계 소식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대한민국 한우먹는날’은 지난 2008년에 선포되어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한 한우농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우를 사랑해 주는 국민에게 보답하기 위한 날이다. 11월 1일은 한민족의 전통사상인 천지인(天地人)을 모티브로 최고를 뜻하는 1이 3번 겹치는 날이라는 의미로 지정됐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개막식이 열렸다. 국가대표 골프감독 박세리 씨와 함께 한우에 대한 궁금증을 풀면서 국민에게 한우의 우수성과 한우먹는날의 취지를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을 11월 1일 11시에 공개하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전국한우협회 회원 모두의 훈장”

김홍길 회장이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11일 제 25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은탑산업 훈장을 수훈했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사회공헌 및 상생협력 등의 가치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등의 모범적인 활동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됐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산업을 위해 한우농가와 협회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일군 성과들을 인정받아 내려진 훈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앙회 임원 및 전직 회장 고문단 등은 “한우협회에 큰 경사가 났다”며 축하를 건넸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 1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연내 추진 가닥
- 2 “한우농가,
암소 비육 기술에도 관심 가질 때”
- 3 [방역특집] “송아지 지키자”...
축사 세척·소독 실시 요령

1 | 특집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연내 추진 가닥

적정사육두수 유지·한우 소비 다변화 등 일거양득
본회, 미경산우 로고 등록 등 브랜드 구축 박차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효과

- 선제적 대응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 수급조절을 통한 한우 가격안정 효과 발생
 - 농가 개량의욕 고취 및 한우 품질 상향 평준화
 - 미경산우 신시장 개척으로 다양한 소비자 욕구 충족 등
- ⇒ 생산자 중심의 수급 안정화

올해 담보상태에 머물렀던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이 연내 재개를 목표로 기준
세분화 등 마무리 조율이 진행중이다. 2023년까지 암소 2만마리 감축을 목표로 하는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농가들의 원활한 출하를 위해 직거래유통망과 연
계한 출하 및 유통망까지 연결된 상태다.

지난해 선제적 수급조절에 동참하기 위해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
의 약 8,700여두의소가 직거래유통망과 연계해 출하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수급전망 등에 따르면 2023년 한우 도축마릿수가 평년 수준보다 23% 증가한 92만10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제적인 수급조절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본회는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연속시행으로 20203년 공급과잉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올해 재개될 사업의 대상우는 2019년 11월~2020년 6월 출생 이내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가당 약정두수, 사업참여시 자율감축 의무, 지원금 등 세밀한 사항은 막판 조율중이다. (한우마당 12월호, 사업기준 설명 예정)

선제적 수급조절 재시동 미경산우 유통망 제도 정비

그동안 본회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해 초 총선에서는 각 당에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수립과 추진을 주문했고 국정감사 등 국회에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압박공세에 나섰다.

오랜 진통 끝에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과 연속성을 갖기 위해 총력을 다해 사업재개에 집중하고 있다.

약정후 비육된 미경산우는 2022년부터 출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축물량이 몰려 도매가격이 출렁이지 않도록 적기에 고른 출하를 유도하여 도매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미경산우 표시제 시행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11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에서 일부 세부지침 내용을 협의했다. 또 ‘암소감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12월부터 참여 신청 농가의 대상 암소와 지원 대상을 논의하도록 했다.

김홍길 회장은 “농가 스스로 한우산업의 위기를 감지하고 자발적으로 수급조절에 참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라며 “한우 수급조절, 개량촉진 그리고 신시장개척

등 한우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속성을 가지고 최소 3년이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에 등록중인 본회 미경산우 브랜드 로고>

미경산우 출하정산 요건

1. 기준가격: 김해공판장 4일(화~금) 평균가격
- 도축일 포함 전 7일 중 4일 평균가(월, 토요일 제외)
2. 출하장려금
- 1++등급·1+등급 : 김해공판장 4일평균가격 + 1,000원
- 1등급 : 김해공판장 4일평균가격 + 500원
*단, 출하규격(300kg이상 480kg이하)에 속하는 개체에 한하여 지급
3. 부산물 가격 : 음성공판장 암소 평균가격 적용
*단, 우피는 당해 도축장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4. 도축장 : 한축산업(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1204-15)
5. 도축비 : 176,000원/두(정산시 공제)
6. 출하수수료 : 0.3%
7. 하자육 처리적립금 : 0.1%(하자육 발생시 공제처리하지 않음)
*하자육은 kg당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감하지 않고, 하자육 처리적립금으로 처리
*단, 그 이상 발생하는 금액은 출하자 부담

“한우농가, 암소 비육 기술에도 관심 가질 때”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시행 초읽기
한우가격 조정국면·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준비 필요
효과적인 난소기능 제어 방법·효과도 검증을

한우자조금을 활용한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이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암소(송아지) 비육 농가들의 적정한 소득 보장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급조절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은 물론, 미경산우 사육의 경제성 검증까지 이뤄질 경우 일정 마릿수의 암송아지를 번식용으로부터 일부 격리함으로써 적정 사육두수 유지 등 장기적인 소 값 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특히 한우사육두수는 2022년 331만 마리까지 늘고, 가임암소도 160만 마리 불어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우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렇다할 소득안정장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선제적 수급조절노력이 최선의 송아지 및 소 값 안정대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장의 사양관리 기술은 대부분 거세우 비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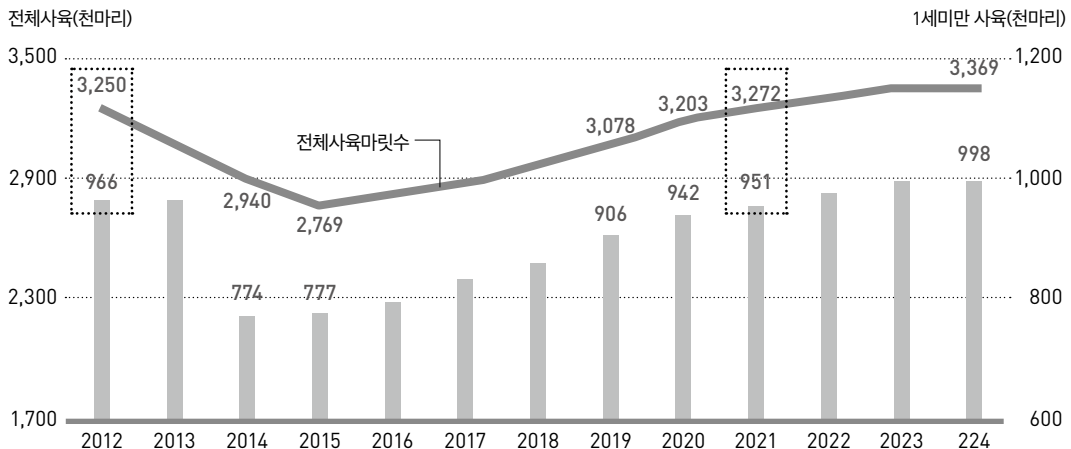
암소 및 미경산우 비육을 하는 농가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보편화 되어 있지 못해 자칫 농가소득 불안정과 한우의 품질 저하 등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한우 사양 관련 전문가들은 “거세우처럼 암소나 암송아지를 비육할 경우 근내 지방 침착은 안 되고 등지방과 불가식 지방만 붙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사양관리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암송아지가 성 성숙 일령에 도달하면서부터 발정스트레스로 인한 사료섭취량 감소로 육량과 육질 부문에서 손실이 커질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최근 한 사료회사에서 열린 기술자문회의에서도 “공급측면에서 한우사육두수의 과잉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가격 하락에 대비한 암소비육기술에 대한 사료회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구분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전체 | 마릿수 | 2,871 | 2,961 | 3,078 | 3,203 | 3,272 | 3,314 | 3,355 | 3,369 |
| | 증감률 | 2.2 | 3.1 | 3.9 | 4.0 | 2.2 | 1.3 | 1.2 | 0.4 |
| 1세 미만 | 마릿수 | 834 | 861 | 906 | 942 | 951 | 973 | 997 | 998 |
| | 증감률 | 5.3 | 3.2 | 5.2 | 3.9 | 1.0 | 2.4 | 2.4 | 0.1 |
| 가임암소 | 마릿수 | 1,372 | 1,427 | 1,489 | 1,542 | 1,578 | 1,592 | 1,602 | 1,610 |
| | 증감률 | 1.9 | 4.0 | 4.3 | 3.6 | 2.3 | 0.8 | 0.6 | 0.5 |



자료:한우사육마릿수 전망(자료: 농촌경제연구원)

난소기능 억제 효과, 있다 VS 없다

경산우 비육은 물론 번식 경험이 없는 미경산우의 비육 모두 육량과 육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양기술은 발정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암소비육 시 발정억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발정 제어 호르몬과 같은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발정 관련 호르몬을 생산·분비하는 번식기관인 난소를 제거하는 방법 이다.

이 가운데 호르몬 요법은 평상시 사료에 첨가해 급여함으로써 암소의 황체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편의성은 높지만 호르몬에 대한 소비자 거부와 잔류 물질에 대한 우려로 최근엔 사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소 적출이나 결찰(묶음) 등 난소기능 제어와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난소를 결찰하거나 적출한 농가의 성적은 시술하지 않은 암소보다 육량과 육질등급이 높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양기술 정보다.

발정증상이 사라져 스트레스가 줄고, 이로 인한 사료섭취량 감소가 없어지면서 증체와 육질 등급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소와 혼합사육이 가능하고, 승가 허용에 의한 사고 발생율도 줄일 수 있다는 잇점도 있다.

경북 봉화의 한우사육농가는 “암송아지(소)의 난소를 묶게 되면 사료를 덜 먹고도 증체가 잘되는 등 사료효율이 크게 좋아진다”면서 “요결석, 브루셀라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온전히 비육에만 집중할 수 있다. 12~14개월령에 난소를 결찰한 뒤 18개월정도 비육해 30~32개월령에 출하하면 거세우나 1~2산차 경산우 못지않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급육 생산에 암소의 난소 제거 효과가 크지 않고 난소를 적출하지 않은 대조군의 지방 교잡 상태가 더 좋았다는 의견도 있다. 난소 적출 이득은 크지 않은 반면 난소 적출에 따른 수술 후유증을 겪는 암소도 있어 그냥 키워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권기찬 (주)발해축산약품 대표는 한우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암소비육을 위해 난소를 제거할 경우는 숙련된 전문의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만 굳이

적출할 필요는 없다”면서 “난소제거 효과는 그리 크지 않으며 실험결과 난소를 적출하지 않은 암소의 지방 침착 상태가 더 훌륭했다”고 말했다.

미경산 한우 시장 전망과 과제는

미경산 한우의 시장 전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한우 암소고기에 대한 특화된 소비시장이 존재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송아지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4~5산 이상의 다산우 비육출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미경산 암소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암소 위주의 경매시장이 활성화된 김해축산물공판장 관계자는 “높은 송아지 가격 영향으로 암소도축비율이 낮아지면서 암소의 평균 출하 월령이 예년에 비해 매우 높아져 1~2산차 암소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상대적으로 출하월령이 낮은 미경산 암소의 경우 희소성으로 높은 가치와 가격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육이 잘된 1+, 1++등급 미경산 암소는 같은 등급의 경산우와 거세우에 비해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 된다”면서 “사양관리가 잘된 미경산 암소는 농가들의 소득부문에 서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정된 재원을 활용한 수급조절용으로는 특화된 시장을 형성시켜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미경산우 표시제도’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별도의 시장 형성과 수급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영석 한우협회 유통사업국장은 “미경산한우는 거세우 시장으로 일반화된 한우고기 시장에서 별도 시장으로 성장할 충분한 맛과 특이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서 “수급조절 등 인위적인 사업방식으로 미경산한우의 소비시장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거세장려금 등으로 한우의 품질고급화가 빠르게 진척된 것 처럼 ‘미경산우 표시제도’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고급화된 암소고기 소비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수급안정 효과를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특집

3

“송아지 지키자” 축사 세척·소독실시 요령

철저한 위생관리로 송아지 설사 예방
특별방역대책기간 축사 소독 만전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맞아 철저한 차단 방역과 함께 중요한 것은 축사 세척 및 소독이다. 축사 내 소독 위생관리를 통해 유기물을 최대한 제거하고 소독제를 살포해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 결과, 유기물이 적을 때 소독제의 효과가 증가하지만, 유기물이 많을 때는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했다.

특히 겨울철 갓 태어난 송아지가 설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신생 송아지의 설사병은 연중 발생하지만, 주로 면역력이 약해지는 환절기에 발병하기 시작해 12월을 전·후로 최고조에 이른다.

송아지 설사병은 충분한 초유 섭취, 예방백신 접종과 더불어 송아지 방의 철저한 위생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신생 송아지를 방에 들이기 전에 소독과 청소를 실시해 병원체, 항생제 내성균 등의 유해 인자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송아지 방에서 사용하는 도구, 기자재 등은 따로 분리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송아지 설사병 항생제 사용 주의

송아지 설사병은 병원체 감염 여부에 따라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구분되며,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감염성 설사는 병원체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성, 세균성, 기생충성 감염으로 구분되며, 비감염성 설사는 부적절한 사료 섭취, 환경변화 등이 원인이 된다.

치료용 항생제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감염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송아지의 항생제 내성률을 파악해 치료에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신생 송아지의 설사병은 송아지 방의 환경과 위생관리로 예방할 수 있다.”라며, “항생제를 쓸 때는 신중을 기해야 높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농장 내 항생제 내성률 증가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세척 · 소독실시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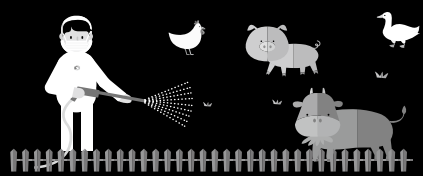
세척과 소독은 차단방역의 핵심 키(key)입니다.

소독제는 질병 발생이 억제되도록 **예방차원에서 집중 사용**해야 합니다.

확실한 소독효과를 위해서는 소독제 사용전 소독대상 표면에 있는

먼지, 오물, 분변, 흙 등을 세척·청소해야 하며,

병원체 사멸을 위해 **적정농도** 및 충분한 **접촉시간** 유지가 필요합니다.



축산농가 세척 · 소독요령

➤ 소독 전 청소

- 소독전 분뇨·사료 등은 소독약의 효력을 감소시키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 세척 · 소독

- 고압세척기 등으로 축사의 **지붕→벽→바닥** 순으로 오물을 물로 세척·청소하고 건조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 **소독 전 세척은 필수!** 세척만으로도 80%이상의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축사내부에 가축이 있는 경우, 소독제가 가축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독대상 표면이 흠뻑 젖는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히 소독제를 뿌려야 한다.

적용대상에 따른 소독방법

➤ 축사바닥 및 토양

- ① 축사의 **지붕→벽→바닥** 순으로 소독하며, **흙으로 된 축사바닥은 생석회를 사용하여** 소독한다.
※ 이때 생석회는 피부나 눈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
- ② 계류장 등의 표피층 **흙은** 긁어내고 충분히 젖을 정도로 소독한다.

➤ 분변 등 오물

- 분변 등 오물을 수거·처리하고 분뇨운반차량과 도구 등을 철저히 소독한다.

➤ 농장 출입구 및 축사

- ① **농장 출입차량은 고압분무기(세척기)로** 차바퀴 및 차량 하부에 묻은 흙 등 유기물을 제거 후 소독하며 **정문소독조는 차바퀴가 잠길 수 있도록** 소독한다.
※ 겨울철에는 소독시설에 열선 등을 설치하여 동결을 방지하고, 동결보완장치 마련이 불가능할 시 생석회 도포 (생석회가 물과 반응하여 소석회가 되어도 일정기간 소독효과를 나타냄)
- ② **축사입구에는** 신발소독조 옆에 **세척 소독조를 두어 장화의 유기물을 제거한** 다음 소독조에 담가 사용하며, **소독조는 장화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하고 축사별로 다른 장화를 비치한다**
※ 축사내부에 소독조 비치, 미지근한 물에 소독약을 고농도(유기물조건, 소독제 사용방법 참고)로 희석하여 사용

외부온도 및 접촉시간에 따른 소독제 효과

| 계절 | 평균기온(℃) | 소독제 접촉시간 | 권장소독제 | 비고 |
|------|-----------|-------------|------------------------------|----------------------------|
| 봄·가을 | 15℃ | 5~15분 | • 산화제 계열 • 1%이상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
| 여름 | 25℃ ~ 30℃ | 5~10분 | 대부분의 소독제 효과 좋음 | |
| 겨울 | 0℃ ~ -10℃ | 15~30분 | • 산화제 계열 • 1%이상 글루타르알데하이드 | 소독제가 얼 수 있으니 시차를 두고 재살포 |

※ 글루타르알데하이드의 경우 다른 소독제에 비해 사용자에게 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 권장

※ 소독제 품목현황 및 사용요령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동물방역→가축방역→**

조류인플루엔자→소독약품, 소독요령, 자료실 참고

사육중인 가축은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1588-4060/9060** 하세요.



한우동향분석

요약

(한우사육) 10월 한우 사육 및 가임암소 전년동기 대비 증가

-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규모화 진행 중

(등급판정) 10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감소

-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7.2%로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증가

* 2020년 9월 등급판정은 추석(10월 1일) 대비 사전도축으로 인해 급증

(도매 및 산지가격) 10월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

- 한우 도매가격은 전년 및 전분기, 전월 대비 상승세 지속
- 한우 산지가격은 큰암소·암송아지 전년동월, 전월 대비 상승
 - 큰숫소 가격은 전년동월, 전분기, 전월 대비 하락
 - 숫송아지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상승, 전월, 전분기 대비 하락

(배합사료 생산 및 정액판매) 전년동기 대비 1~10월 판매량 모두 증가

- 1~10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한우사육 두수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 1~10월 정액판매량은 가임암소 증가와 높은 번식의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

(쇠고기 수입) 1~10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감소

- 냉동쇠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한 반면 냉장쇠고기 수입량은 소폭 증가
- * 쇠고기 수입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식과 단체급식 수요 감소 때문

(수급전망) 한우 사육 증가세 지속 전망

- 가임암소 및 정액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 예상, 한우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사육두수 증가로 도축두수 증가 예상되며, 도축량 증가로 도매가격 소폭 하락 전망

한우 사육동향

2020년 10월 한우 사육 및 가임암소 전년동기 대비 모두 증가

- 한우 사육두수는 320만 8천두로 전년동월(307만 9천두)보다 4.2%(12만 9천두) 증가, 전월 대비 0.9%(2만 9천두) 감소
 - 전년 대비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암소를 비롯한 1세 미만과 1~2세, 2세 이상 사육두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 가임암소는 154만 1천두로 전년동월 대비 3.9%(5만 8천두) 증가, 전월 대비 0.3%(5천두) 감소
- 연령별 사육두수는 1세 미만과 1~2세에서 전년동월, 전월 대비 모두 증가
 - 반면 2세 이상은 전년동월 대비 2.6%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 2.9% 감소
 - 이는 개월수 증가에 따라 1세 미만은 1~2세로, 1~2세 미만은 2세 이상으로 이동한 반면 2세 이상은 추석 시즌 출하가 더 컸기 때문
- 농장수는 88,830호로 전년동월 대비 1.2%(1,083호) 감소, 전월 대비 0.1%(63호) 감소해 농장 감소세가 지속
- 농장당 사육두수는 36.1두로 전년동월 대비 5.6%(1.9두) 증가, 전월 대비 0.8%(0.3두) 감소해 사육두수 규모화 지속

<표1> 한우 사육현황

(단위 : 호, 천마리, %, 마리)

| 구분 | | 농장수 | 사육 두수 | 가임 암소 두수 | 송아지 두수 | 연령별 두수 | | | 농장당 사육두수 |
|------|---------------|---------|----------|-------------|-----------|--------|------|-------|-------------|
| | | | | | | 1세 미만 | 1~2세 | 2세 이상 | |
| 2015 | | 101,670 | 2,769 | 1,330 | 706 | 777 | 784 | 1208 | 27.2 |
| 2016 | | 97,498 | 2,810 | 1,346 | 723 | 792 | 788 | 1229 | 28.8 |
| 2017 | | 94,107 | 2,871 | 1,372 | 784 | 834 | 804 | 1234 | 30.5 |
| 2018 | | 92,238 | 2,962 | 1,427 | 899 | 861 | 825 | 1276 | 32.1 |
| 2019 | 3월 | 91,496 | 2,908 | 1,396 | 168 | 870 | 824 | 1,214 | 31.8 |
| | 6월 | 90,856 | 3,094 | 1,420 | 371 | 890 | 826 | 1,377 | 34.1 |
| | 9월 | 90,142 | 3,116 | 1,474 | 246 | 898 | 838 | 1,379 | 34.6 |
| | 10월(A) | 89,913 | 3,079 | 1,483 | 59 | 826 | 848 | 1,405 | 34.2 |
| | 12월 | 89,731 | 3,078 | 1,484 | 160 | 883 | 852 | 1,321 | 34.1 |
| 2020 | 3월 | 89,411 | 3,038 | 1,456 | 186 | 922 | 862 | 1,254 | 34.0 |
| | 6월 | 89,155 | 3,175 | 1,480 | 330 | 887 | 878 | 1,410 | 35.6 |
| | 9월(B) | 88,893 | 3,237 | 1,546 | 249 | 858 | 894 | 1,485 | 36.4 |
| | 10월(C) | 88,830 | 3,208 | 1,541 | 57 | 870 | 896 | 1,442 | 36.1 |
| 증감율 | 전년동월 (C/A) | △1.2 | 4.2 | 3.9 | 3.4 | 5.3 | 5.7 | 2.6 | 5.6 |
| | 전월 (C/B) | △0.1 | △0.9 | △0.3 | - | 1.4 | 0.2 | △2.9 | △0.8 |

주 : 1. 매월1일 기준

2. 2020년 3분기까지는 '가축동향조사' 자료이며, 2019/2020년 10월 자료는 '소이력제현황' 자료임

3. 송아지 생산두수의 경우 2020년 3분기까지 자료는 가축동향-한우과거 3개월간 변동상황'자료이며, 2019/2020년 10월은 이력제시스템-지역별 출생신고현황'자료임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 등급판정 동향

10월 한우 등급판정두수 전월 및 전년동월 대비 모두 감소

- 10월 한우 등급판정두수는 53,662두로 전월(90,784두) 대비 44.0%(42,122두) 감소, 전년동월(65,786두) 대비 18.4%(12,124두) 감소
 - 성별비율은 암소 40.0%, 수소 1.0%, 거세우 58.9%
 - * 전월대비 : 암소 5.1%p↓, 수소 0.7%p↓, 거세우 5.7%p↑
 - * 2020년 9월 등급판정은 추석(10월 1일) 대비 사전도축으로 인해 급증

<표 2> 한우 성별 등급판정두수

(단위 : 두, %)

| 구분 | 계 | 암 | 수 | 거세 | 수소거세율 |
|--------------|---------|---------|-------|---------|-------|
| 전년누계 | 629,906 | 284,322 | 9,307 | 336,277 | 97.3 |
| ('19.1.~10월) | (100.0) | (45.1) | (1.5) | (53.4) | |
| 금년누계 | 639,702 | 294,121 | 8,514 | 337,067 | 97.5 |
| ('20.1.~10월) | (100.0) | (46.0) | (1.3) | (52.7) | |
| 전년동월 | 65,786 | 27,337 | 678 | 37,771 | 98.2 |
| ('19.10월) | (100.0) | (41.6) | (1.0) | (57.4) | |
| 전월(9월) | 95,784 | 43,181 | 1,635 | 50,968 | 96.9 |
| | (100.0) | (45.1) | (1.7) | (53.2) | |
| 당월(10월) | 53,662 | 21,489 | 549 | 31,624 | 98.3 |
| | (100.0) | (40.0) | (1.0) | (58.9) |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10월 한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24.7%, 1+등급 27.3%, 1등급 25.2%

- 10월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7.2%, 1++등급 24.7%, 1+등급 27.3%, 1등급 25.2%
 - 전월 대비 1등급 이상 전체 출현율은 전월(75.3%) 대비 1.9%p↑, 1++ 등급은 0.9%p↑, 1+등급은 1.0%p↑, 1등급은 동일
 - 전년동월 대비 1등급 전체 출현율은 2.0%p↑, 1++등급은 8.2%p↑, 1+등급은 2.2%p↓, 1등급은 4.0%p↓
 - 전년누계 대비 1++등급은 7.8%p↑, 1+등급은 3.5%p↓, 1등급은 4.1%p↓

<표 3> 한우 등급별 출현율 추이

(단위 : 두, %)

| 구분 | | 판정두수 | 육질등급 | | | | | | 육량등급 | | | 등외 |
|-------------|----------|---------|------|------|------|------|------|------|------|------|------|------|
| | | | 1++ | 1+ | 1 | 소계 | 2 | 3 | A | B | C | |
| 2016 | | 737,476 | 9.6 | 30.4 | 29.4 | 69.3 | 22.8 | 7.6 | 22.9 | 47.2 | 29.6 | 0.2 |
| 2017 | | 742,536 | 10.1 | 33.3 | 28.7 | 72.1 | 20.3 | 7.4 | 21.2 | 47.1 | 31.4 | 0.3 |
| 2018 | | 736,354 | 12.2 | 30.4 | 30.4 | 72.9 | 19.4 | 7.3 | 20.5 | 47.6 | 31.7 | 0.3 |
| 2019 | | 765,297 | 15.7 | 28.3 | 29.9 | 74.0 | 18.6 | 7.1 | 20.7 | 48.2 | 30.8 | 0.3 |
| 2019 | 10월(A) | 65,786 | 16.5 | 29.5 | 29.2 | 75.2 | 17.5 | 6.9 | 19.3 | 48.6 | 31.7 | 0.5 |
| | 1~10월(B) | 629,906 | 14.5 | 28.8 | 30.4 | 73.7 | 18.9 | 7.2 | 20.6 | 48.0 | 31.1 | 0.3 |
| 2020 | 9월(C) | 95,784 | 23.8 | 26.3 | 25.2 | 75.3 | 17.3 | 7.2 | 25.2 | 51.6 | 23.1 | 0.2 |
| | 10월(D) | 53,662 | 24.7 | 27.3 | 25.2 | 77.2 | 16.3 | 6.3 | 24.6 | 51.3 | 23.8 | 0.3 |
| | 1~10월(E) | 639,702 | 22.3 | 25.3 | 26.3 | 73.9 | 18.4 | 7.4 | 25.5 | 50.4 | 23.9 | 0.3 |
| 전월대비(D-C) | | △42,122 | 0.9 | 1.0 | 0.0 | 1.9 | △1.0 | △0.9 | △0.6 | △0.3 | 0.7 | 0.1 |
| 전년동월대비(D-A) | | △12,124 | 8.2 | △2.2 | △4.0 | 2.0 | △1.2 | △0.6 | 5.3 | 2.7 | △7.9 | △0.2 |
| 전년누계대비(E-B) | | 9,796 | 7.8 | △3.5 | △4.1 | 0.2 | △0.5 | 0.2 | 4.9 | 2.4 | △7.2 | 0.0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한우 도매 및 산지가격 동향

10월 한우 도매가격 전년 및 전월, 전분기 대비 상승

- 10월 1등급 기준 도매가격은 코로나19에 의한 가정내 소비증가로 전년동월 대비 13.7%(2,491원/kg), 전월 대비 0.6%(126원/kg), 전분기 대비 3.7%(739원/kg) 각각 상승
- 한우도체 kg당 평 균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8.6%(1,606원/kg), 전분기 대비 1.9%(384원/kg)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2%(411원/kg) 하락

<표 4> 한우도체 육질등급별 도매(경락) 가격 추이(전국)

(원/kg, %)

| 구분 | | 1++ | 1+ | 1 | 2 | 3 | 등외 | 평균 |
|------|-----------|--------|--------|--------|--------|--------|-------|--------|
| 2017 | | 20,325 | 18,189 | 16,951 | 13,969 | 11,048 | 5,715 | 16,719 |
| 2018 | | 20,958 | 19,416 | 17,967 | 14,965 | 12,025 | 6,194 | 17,772 |
| 2019 | 3월 | 21,314 | 19,650 | 17,338 | 14,354 | 11,856 | 6,269 | 17,513 |
| | 6월 | 21,955 | 20,230 | 17,742 | 14,646 | 11,060 | 4,857 | 17,936 |
| | 9월 | 21,779 | 20,370 | 18,834 | 15,322 | 10,915 | 5,400 | 18,610 |
| | 10월(A) | 20,419 | 19,586 | 18,196 | 15,448 | 11,943 | 4,432 | 18,208 |
| | 평균 | 21,290 | 19,788 | 17,922 | 14,778 | 11,649 | 5,281 | 17,965 |
| 2020 | 3월 | 22,036 | 20,629 | 19,022 | 15,210 | 11,829 | 4,757 | 18,662 |
| | 6월(B) | 24,101 | 21,984 | 19,948 | 16,061 | 12,440 | 5,571 | 19,832 |
| | 9월(C) | 23,307 | 21,430 | 20,561 | 16,245 | 12,672 | 5,361 | 20,216 |
| | 10월(D) | 23,331 | 21,538 | 20,687 | 17,212 | 13,454 | 5,588 | 20,729 |
| 증감율 | 전년동월(D/A) | 14.3 | 10.0 | 13.7 | 11.4 | 12.7 | 26.1 | 13.8 |
| | 전월(D/C) | 0.1 | 0.5 | 0.6 | 6.0 | 6.2 | 4.2 | 2.5 |
| | 전분기(D/B) | △3.2 | △2.0 | 3.7 | 7.2 | 8.2 | 0.3 | 4.5 |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통계'

10월 한우 산지가격은 큰암소·암송아지 상승세, 큰숫소·숫송아지 하락세

- 10월 큰소(600kg) 산지가격은 암소의 경우 6,291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10.6% (605천원), 전월 대비 3.1%(190천원), 전분기 대비 0.6%(36천원) 각각 상승
 - 반면, 수소의 경우 5,232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7.3%(412천원), 전월 대비 3.5%(188천원), 전분기 대비 4.9%(272천원) 각각 하락
- 10월 송아지(6~7개월령) 산지가격은 암송아지의 경우 3,553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9.3%(302천원), 전월 대비 2.1%(72천원) 각각 상승한 반면 전분기 대비 1.6% (57천원) 하락
 - 수송아지의 경우 4,360천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7.8%(316천원) 상승한 반면 전월 대비 3.3%(150천원), 전분기 대비 3.2%(145천원) 각각 하락

<표 5> 한우 산지가격 추이

(단위 : 천원, %)

| 구분 | | 큰소(600kg) | | 송아지(4~5월령) | | 송아지(6~7월령) | |
|------|-----------|-----------|-------|------------|-------|------------|-------|
| | | 암 | 수 | 암 | 수 | 암 | 수 |
| 2016 | | 5,816 | 5,650 | 2,465 | 3,485 | 2,900 | 3,550 |
| 2017 | | 5,406 | 4,733 | 2,612 | 3,444 | 2,919 | 3,572 |
| 2018 | | 5,599 | 4,911 | 2,725 | 3,272 | 3,118 | 3,841 |
| 2019 | 3월 | 5,619 | 5,495 | 3,290 | 3,307 | 3,149 | 3,684 |
| | 6월 | 5,558 | 5,685 | 2,771 | 3,562 | 3,362 | 4,219 |
| | 9월 | 5,589 | 5,556 | 2,941 | 3,570 | 3,170 | 4,031 |
| | 10월(A) | 5,686 | 5,644 | 2,158 | 3,742 | 3,251 | 4,044 |
| | 평균 | 5,646 | 5,476 | 2,790 | 3,394 | 3,212 | 3,930 |
| 2020 | 3월 | 5,943 | 4,983 | - | 3,132 | 3,299 | 3,960 |
| | 6월(B) | 6,255 | 5,504 | 3,189 | 4,393 | 3,610 | 4,505 |
| | 9월(C) | 6,101 | 5,420 | 2,571 | 3,733 | 3,481 | 4,510 |
| | 10월(D) | 6,291 | 5,232 | 2,629 | 3,736 | 3,553 | 4,360 |
| 증감율 | 전년동월(D/A) | 10.6 | △7.3 | 21.8 | △0.2 | 9.3 | 7.8 |
| | 전월(D/C) | 3.1 | △3.5 | 2.3 | 0.1 | 2.1 | △3.3 |
| | 전분기(D/B) | 0.6 | △4.9 | △17.6 | △15.0 | △1.6 | △3.2 |

자료 : 농협축산정보센터 '산지가격동향'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정액 판매 동향

10월 배합사료 생산 및 한우 정액판매량 모두 증가

- 2020년 1~10월 배합사료 생산량은 4,142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4.7%(185천톤) 증가했으며, 지속적인 한우 사육두수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
- 1~10월 한우 정액판매량은 1,979천str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3%(217천str) 증가
- 이는 가임암소가 증가하고 농가의 번식의향이 높게 유지되기 때문으로 분석

〈표 6〉 배합사료 및 정액판매 추이

(단위 : 천톤, 천str)

| 구분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배합 사료 | 2017 | 388 | 363 | 398 | 355 | 389 | 373 | 349 | 389 | 416 | 358 | 395 | 394 | 4,566 |
| | 2018 | 407 | 358 | 374 | 368 | 389 | 364 | 348 | 401 | 366 | 428 | 407 | 404 | 4,616 |
| | 2019 | 439 | 341 | 383 | 403 | 403 | 365 | 404 | 397 | 392 | 430 | 406 | 428 | 4,791 |
| | 2020 | 426 | 384 | 412 | 414 | 404 | 402 | 427 | 390 | 457 | 428 | | | 4,142 |
| 정액 | 2017 | 141 | 47 | 176 | 158 | 160 | 211 | 229 | 170 | 214 | 180 | 148 | 122 | 1,956 |
| | 2018 | 134 | 119 | 166 | 55 | 237 | 233 | 223 | 195 | 189 | 179 | 151 | 174 | 2,054 |
| | 2019 | 138 | 48 | 207 | 196 | 195 | 196 | 231 | 183 | 183 | 185 | 192 | 141 | 2,095 |
| | 2020 | 157 | 168 | 155 | 213 | 207 | 231 | 207 | 211 | 227 | 205 | | | 1,979 |

주 : 2019년 2월 구제역 발생으로 정액판매가 중단(2.1~2.21) 됐으며,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와 불일치
자료 : 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쇠고기 수입현황

2020년 1~10월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4.1%(14,680톤) 감소

- 1~10월 쇠고기 수입량은 34만 8천톤으로 전년 동기간 36만 2천톤에 비해 4.1% 감소
 - 전년 동기간 대비 냉장쇠고기는 11.8%(8,536톤) 증가했으나 냉동쇠고기 수입물량이 큰 폭(△8.3%, 23,216톤)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수입물량 감소
- 1~10월 부위별 쇠고기 수입물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등심과 양지, 갈비 부위가 각각 16.7%(7,423톤), 11.2%(5,543톤), 1.4%(1,968톤) 감소한 반면 앞다리는 1.2%(519톤) 증가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수입쇠고기의 주요 소비처인 외식과 단체급식에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
- 1~10월 국가별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호주와 미국에서 각각 8.3%(11,453톤), 4.3%(8,703톤) 감소한 반면, 멕시코와 뉴질랜드 등에서 각각 33.4% (1,735톤), 26.3%(2,943톤) 크게 증가

<표 7> 쇠고기 수입 추이

(단위 : 톤, %)

| 구분 | 물량 | | | 부위별 | | | | | 국별 | | |
|------|---------|---------|--------|---------|--------|--------|--------|--------|---------|---------|--------|
| | 합계 | 냉동 | 냉장 | 갈비 | 양지 | 앞다리 | 등심 | 기타 | 미국 | 호주 | 기타 |
| 2010 | 245,086 | 203,006 | 42,080 | 99,264 | 23,446 | 25,464 | 36,353 | 60,559 | 90,569 | 121,790 | 32,727 |
| 2015 | 297,265 | 245,952 | 51,313 | 115,460 | 38,582 | 31,404 | 42,826 | 68,993 | 112,431 | 164,063 | 20,771 |
| 2016 | 361,531 | 301,219 | 60,312 | 133,197 | 35,049 | 45,295 | 50,001 | 97,989 | 153,181 | 177,530 | 30,820 |

| 구분 | | 물량 | | | 부위별 | | | | | 국별 | | |
|-------|-----------|---------|---------|--------|---------|--------|--------|--------|---------|---------|---------|--------|
| | | 합계 | 냉동 | 냉장 | 갈비 | 양지 | 앞다리 | 등심 | 기타 | 미국 | 호주 | 기타 |
| 2017 | | 344,271 | 265,665 | 78,606 | 142,659 | 37,517 | 42,648 | 39,031 | 82,416 | 168,502 | 149,935 | 25,834 |
| 2018 | | 415,685 | 326,531 | 89,154 | 151,933 | 53,737 | 54,270 | 55,595 | 100,150 | 219,769 | 167,454 | 28,462 |
| 2019 | | 426,626 | 339,240 | 87,386 | 164,792 | 57,444 | 53,881 | 49,849 | 100,660 | 237,624 | 163,158 | 25,844 |
| 2019 | 1~9월 | 322,691 | 258,132 | 64,559 | 121,674 | 44,630 | 39,727 | 40,599 | 76,061 | 179,475 | 122,902 | 20,314 |
| | 10월 | 39,546 | 32,023 | 7,524 | 16,624 | 4,927 | 5,283 | 3,776 | 8,936 | 22,993 | 14,992 | 1,561 |
| | 누계(A) | 362,237 | 290,154 | 72,083 | 138,298 | 49,557 | 45,010 | 44,375 | 84,997 | 202,468 | 137,894 | 21,875 |
| 2020 | 1~9월 | 314,507 | 241,909 | 72,598 | 124,383 | 39,139 | 41,724 | 32,556 | 76,705 | 173,632 | 115,268 | 25,606 |
| | 10월 | 33,050 | 25,029 | 8,021 | 11,946 | 4,875 | 3,805 | 4,396 | 8,028 | 20,133 | 11,173 | 1,744 |
| | 누계(B) | 347,557 | 266,938 | 80,619 | 136,330 | 44,014 | 45,529 | 36,952 | 84,733 | 193,765 | 126,441 | 27,350 |
| 증 감 륜 | 전년동기(B/A) | △4.1 | △8.0 | 11.8 | △1.4 | △11.2 | 1.2 | △16.7 | △0.3 | △4.3 | △8.3 | 25.0 |

주 : 누계 A와 B는 당해년 10월까지의 수입물량 합계를 의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축산물검사실적)

05

수급 전망¹

당분간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 지속 전망

- 가임암소와 정액 판매량 증가로 송아지 생산 증가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한우 사육 두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1 KREI 축산관측 전망치 인용

- 한우 사육두수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320만 3천두, 2021년 3월 3,141천두(3.3%↑), 6월 3,309천두(4.0%↑), 9월 3,323천두 (1.2%↑), 12월 3,272천두(2.1%↑) 전망
- 가임암소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54만 2천두, 2021년 3월 1,505천두(3.5%↑), 6월 1,531천두(3.4%↑), 9월 1,576천두 (1.7%↑), 12월 1,578천두 (2.3%↑) 전망
- 1세 미만 : 2020년 12월 두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94만 2천두, 2021년 3월 933천두(1.2%↑), 6월 941천두(6.2%↑), 9월 949천두 (0.1%↑), 12월 951천두(1.0%↑) 전망

한우 도축 증가가 예상되며,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 전망

- 당분간 한우 도축은 사육두수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2020년 도축 두수는 78만 3천두로 예상되며, 9~11월 21만 6천두, 12월~ 2021.2월 22만 3천두, 3~5월 19만 1천두, 6~8월 18만 3천두 도축 전망
- 도축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대비 도매가격은 소폭 상승하나 내년엔 하락 전망
 - 2020년 9~11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3~7% 상승한 19,000원~19,500원으로 예상되며, 금년 12월~2021년 2월 18,000~18,500원, 3~5월 17,000원~17,500원, 6~8월 18,000~18,500원 전망



1. 들어가며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279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제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되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현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포함하여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불복하고 있지만, 언론들은 사법부에서 트럼프의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국 조 바이든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신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한우산업에 미칠 영향은?

한민수 _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선거의 핵심 구호로 “미국의 정신과 관련된 싸움(투쟁)”을 부각시켰다. 특히 11월 6일(한국시각) 승리 선언 연설에서, “미국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의 등불이다. 우리는 힘의 본보기가 아닌 모범적인 본보기로 이끌 것이다”, “(미국 국민들의 뜻은) 품위와 공정의 힘”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전 트럼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정책 방향을 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통상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작년 이맘 때, 차기 WTO 협상에서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우리 입장에서 바

이든 정부 출범은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이에 이번 월간 한우마당에서는, 언론 및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상황을 전망하고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근본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WTO 농업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영향

작년 1월 이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 국가(싱가폴, 멕시코, 터키, 대만,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등)를 WTO 개도국 지위 졸업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도국 우대 조치 포기('19. 10. 23.까지)를 강력히 압박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G20 국가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 등 미국이 지정한 4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어, 1995년 이후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던 농업 개도국 지위를 차기 WTO 협상부터 요구하지 않기로 작년 11월 결정한 바 있다.

2012년 12월 제9차 각료회의(인도네시아 발리) 이후 지금까지 WTO 농업협상은 답보 상태였으며, 트럼프 정부가 WTO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켜 협상 진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은 WTO 기능을 부활(분쟁조정 기구 구성, 차기 사무총장 선출)시켜 다자주의체제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트럼프 정부 때 미·중 무역갈등 사례와 같이 양자간의 불확실한 제재보다는 WTO 규범에 근거한 일관된 방식으로 통상현안을 풀어나가며 상대국을 압박해 나갈 것이라는 학계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작년 가을 한우정책연구소는 WTO 농업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한 한우산업 피해를 예측했다. 한-미 FTA 협상 결과 '26년 쇠고기 관세가 전면 철폐될 예정이나, '20년 16.0%인 쇠고기 관세율이 협상 타결시(선진국 기준) 5.6~9.3%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17년 한·육우(쇠고기) 생산액은 4조 8천억원이었는데, WTO 최소허용보조는 개도국 지위 유지시(10%) 4,800억원이었던 것이 선진국(2.5%) 인정시 1,200억원으로 감축하여,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비육우경영안정제 등 협회(한우농가)가 요구하는 경영안정

정책이 실효성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차기 WTO 협상에서 농업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한우산업 안정·발전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선과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농가경영안정대책부터 속히 도입·실행해야 할 때다.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다. 이후 일본 주도 하에 기존 TPP 국가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출범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차기 바이든 정부는 TPP에 재가입하여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하며 중국을 강력히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17년 한-미 FTA 재협상에서는, 한·육우 및 낙농 분야 관세 감축 및 관세할당물량 (TRQ) 증가 등 불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TPP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TPP 가입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은 일본의 TPP 가입 선결 조건으로 쌀시장 추가 개방과 쇠고기 수입월령 제한을 30개월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TPP 가입과 관련하여 사전 협상을 진행할 당시, 칠레·호주·뉴질랜드 등 기존 TPP 가입 국가들도 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때문에 우리 한우산업을 보호하는 핵심 비관세장벽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4. 탄소조정세를 포함한 환경 관련 이슈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조정세’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탄소조정세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정책의 하나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에 관세나 쿼터 형식으로 탄소조정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우산업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축산업 분야에서는 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등에서 수입되는 축산물과 낙농품에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옥수수 등 곡물로 비육하여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강력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메탄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며 우리나라 한·육우보다(’18년 3,406천두, 세계 18위) 사육두수가 훨씬 많은(’18년 추정 94,399천두 사육, 세계 4위) 미국 육우산업을 생각해본다면, 한우(육우)산업과 관련하여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책임은 당연히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설 이후 한우값 하락은 물론 사료곡물(옥수수 등) 가격 대폭 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지구 환경 문제 해결을 표방하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바이오 에너지 분야가 활성화될 경우, ’08년 애그플레이션(국제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정부 당시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축산환경 분야 이슈들이 집중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 한우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때다.

현재 축산환경 정책 담당 부처는 환경부와 농식품부로 나뉘어 있다. 한우농가들은 정부 축산환경 정책 변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규제가 도입·강화되면 손쓸틈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환경부가 책임지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환경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소상히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농가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처벌을 지양하고 교육·홍보·지도에 더욱 신경써, 축산농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식품부 또한 책임이 크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농촌이 한국 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농업·농촌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써 축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자금 지원, 관련 기술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협회가 한우자조금에 의뢰한 “한우분뇨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축산 환경학회 수행)”가 조만간 시작된다. 이 연구를 통해 한우산업이 직면한 축산냄새, 수질 오염, 퇴비 부숙도,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기초 연구와 함께, 한우분뇨 관리(처리) 및 자원화 관련 대응방안 및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5. 나가며

지속가능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전략을 세우고, 협회 및 한우농가와 함께 추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WTO 차기 협상 및 TPP 등 농업 통상협상 대응 전략을 포함하여, 수급·가격 안정정책(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우경영안정제), 축산환경 정책(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는 지원사업 및 연구 추진 포함), 청년·여성 한우인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정된 한우산업, 함께 하는 민족산업”으로 정립시켜 나가야 할 때다.



을 5월 시행에 들어간 공익형직불제는 벼농사에 집중됐던 직불예산을 축산을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개편되었다.

공익형직불제는 크게 기본형과 선택형이 있으며, 기본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선택형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물 직불제, 경관 보전 직불제, 논활용 직불제 등 4개로 구성된다.

기본형 직불 대상에게 직불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직불금 수령 대상이 되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될까?

환경 개선에 초점 맞춤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필요

김재민 _ 농장에서 식탁까지 편집장

는 농업인은 환경 보호, 생태 보전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기본 직불금 총액에서 10%가 감액되며, 해마다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40%까지 직불금 감액이 이뤄진다.

농업인들에게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 개념이다.

축산부문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일부 소농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축산농민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공익형직불제로 개편>

| 개편전 | 개편후 | | |
|-----------------------|---------------------|-------|--------------------------|
|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 공익형 직불제 | 기본형직불 | 소농직불금(정액) 면적직불금(역진설계) |
| 밭농업직불 | |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 축산) |
| 조건불리지역직불 | | 선택형직불 | |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농업, 축산) | | | |
| FTA피해보전직불, FTA 폐업지원 | FTA피해보전직불, FTA 폐업지원 | | |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논의 동향

축산업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약취와 같은 외부불경제를 함께 생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축산이 작물재배업과 함께 국내 농업의 한축임에도 불구하고 공익형직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정감사 기간 도입 필요성이 지적되면서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먼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축산분야 직불금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사업으로 한우분야 공익형직불제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 4월 종료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해 놓은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공익형 직불에 아직까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익형 직불사업이 어떤 사회적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자칫 얼마 되지 않는 보조금을 이유로 과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다.

농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공익형 직불 방안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월 18일 농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발표되었다.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이용 등 환경과 관련한 규제와 함께, 동물복지 등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익형 직불 대상 품목에 편입이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농특위에서 의결한 ‘지역자원기반 경축 순환 활성화 사업’에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참여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는 크게 사육형태와 환경과 관련한 공익적 활동으로 나누어 직불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육형태는 동물복지축산인증, 친환경축산인증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며, 환경형은 다시 경축순환활성화, 저탄소인증, 대기환경개선 등 세가지 파트에 각각 성과를 냈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축산분야 공익형 직불제(안)>

| 구분 | 프로그램 | | |
|------|-------------------|-------------------|---------------------------------|
| 사육형태 | 동물복지축산인증, 친환경축산인증 | | |
| 환경 | 경축순환 활성화 |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 | 경영체 등록 기준을 근거로 축종별 규모에 따라 역진 설계 |
| | | 퇴액비 살포용 농지(초지) 확보 | |
| | 저탄소 | 온실가스 감축 | |
| | 대기환경개선 | 약취 저감 | |
| | | 미세먼지 저감 | |

※ 직불제 대상에서 기업축산 제외하며 기업에는 의무만 부여.

환경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에 기여

축산업은 악취 등 환경문제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와 같은 거시적 위기는 둘째로 넘기더라도 악취로 인해 지역 민들에게 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에 대한 보조나 융자사업을 실시하였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실천을 유도해왔으나 성과가 크지 못했다.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농가들이 농장 경영 과정에서 투입되는 여러 지출은 크게 투자와 비용으로 나뉘게 되는데, 투자는 지출이 나중에 더 큰 소득으로 돌아오는 경우로 이럴 경우 농가들은 지출을 아끼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비용으로 분류되는 지출은 경제적 이익이 지출과 같거나 작은 것을 의미하며 농가들은 비용으로 분류되는 지출은 보통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경 관련 지출은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되도록 적게 지출하려는 경향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기술 또한 조악할 수밖에 없다.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지출이 비용이 아닌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환경 관련 직불제 도입은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직불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면서, 축산분야 공익적 기능이 강화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전국한우농가 영농승계 실태조사 “영농자금 지원 절실”

영농자금 지원, 규제완화 희망...81%
승계과정 최고 갈등 원인 ‘의사결정 참여’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한우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실시한 영농 승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월에 전국의 한우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총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영농 승계자가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는 독립경영 29.6%, 공동경영 28.8%, 협업경영 25.4%, 경영준비 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계자의 58.4%가 한우, 축사 등 자신의 자산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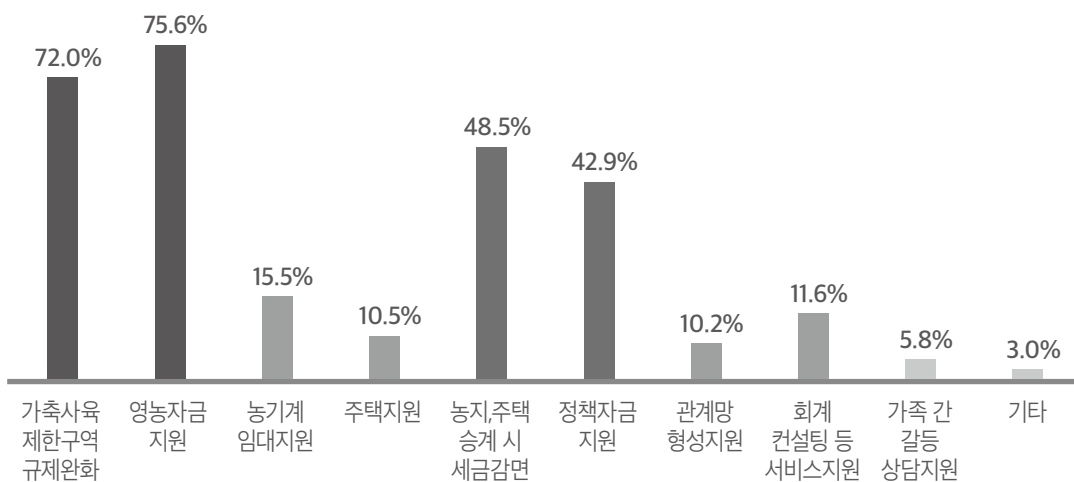
후계자에 대한 농장 승계 절차의 경우 현 경영주가 살아있을 때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양도하겠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1.7%는 아직 승계 계획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주와 승계자 간 갈등에 대해서는 경영주 9.4%, 승계자 25.5%가 갈등이 있다고 대답했다. 갈등원인은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갈등이 가장 높았고 역할분담과 노동 및 근로 형태에 대한 이견으로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영주 | | 영농승계자 | | 전체 | |
|------|-----|-------|-------|-------|-----|-------|
| | 명 | % | 명 | % | 명 | % |
| 경영준비 | 13 | 18.3% | 16 | 5.6% | 29 | 8.1% |
| 협업경영 | 8 | 11.3% | 83 | 28.9% | 91 | 25.4% |
| 공동경영 | 6 | 8.5% | 97 | 33.8% | 103 | 28.8% |
| 독립경영 | 19 | 26.8% | 87 | 30.3% | 106 | 29.6% |
| 타인승계 | 6 | 8.5% | 0 | 0.0% | 6 | 1.7% |
| 기타 | 19 | 26.8% | 4 | 1.4% | 23 | 6.4% |
| 합계 | 71 | 100% | 287 | 100% | 358 | 100% |

※ 미응답자 3명 제외

- 독립경영 : 승계자가 별도의 축사를 독립적으로 소유·운영하다가 향후 인수합병
- 공동경영 : 승계자가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경우 (소유권 有)
- 협업경영 : 승계자가 노동에 따른 월급 또는 연봉 등을 받는 경우
- 경영준비 : 승계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농장 승계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 타인승계 : 영농승계자가 부재하여 제3자에게 승계, 매각하는 경우



< 영농 승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복수응답) >

원활한 승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75.6%가 ‘영농자금 지원’을 꼽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72.0%)’, ‘농지, 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48.5%)’이 뒤를 이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와 영농자금 지원이 경영주와 승계자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응답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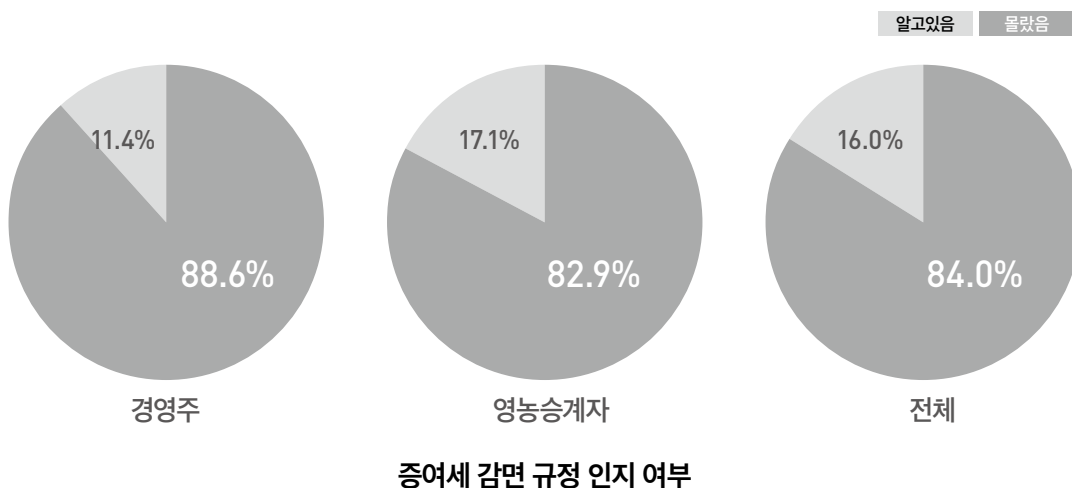
이와 함께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축산 경영상담과 축산기술상담이 경영주, 승계자 모두에게 가장 큰 관심사안이었고, 승계자는 증여 및 상속 상담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았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의해 축사용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84.0%가 몰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1%가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축산 농가들이 후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활한 후계 인력 확보 및 승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농 자금 지원’과 ‘가축사육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 | 경영주 | | 영농승계자 | | 전체 | |
|-------|-----|-------|-------|-------|-----|-------|
| | 명 | % | 명 | % | 명 | % |
| 알고 있음 | 8 | 11.4% | 49 | 17.1% | 57 | 16.0% |
| 몰랐음 | 62 | 88.6% | 238 | 82.9% | 300 | 84.0% |
| 합계 | 70 | 100% | 287 | 100% | 357 | 100% |

※ 미응답자 3명 제외



●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5. 30., 2011. 12. 3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한우사육 100문100답

국립축산과학원

겨울철 축사 내 송풍기를 틀어주어야 하는가? 축사 내 송풍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과 축사 내 환기를 위한 2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여름철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송풍기를 사용하지만 각 사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여름철 고온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송풍기를 사용하게 된다. 풍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체표면의 수분이나 땀을 보다 빠르게 증발되도록 하여 체감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즉, 풍속을 증가시킴으로써 체표면의 수분이나 땀을 보다 빠르게 증발되도록 하여 체감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송풍기 설치 시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바람이 나갈 수 있게 45도 각도로 설치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둘째, 축사내부의 정체되어 있는 공기를 순환시켜주거나 유해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해 송풍기를 가동시킬 수 있다. 겨울철에는 축사내부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환기를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만, 겨울철 우사 내외부의 큰 기온차로 인해 우사 천정에 결로가 발생하고, 우사 내 습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습한 환경은 송아지나 육성우에게 피부병인 버짐 및 호흡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 습도를 유지 시켜주기 위해서 겨울철이더라도 하루에 한번 이상 송풍기를 틀어주어 습기 배출을 해주어야 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033-330-0693)

Q : 송아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적인 관리요령은?

송아지 질병은 대다수가 설사를 동반한 소화기 질병과 폐렴을 동반한 호흡기 질병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① 우사는 가능한 건조하게 하되 정기적인 청소, 세척, 약품소독 등을 실시하여 송아지가 각종 병원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분만직후 초유를 먹이기 전에 어미소의 유두를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닦아준 후 젖을 빨게 한다.
- ② 초유를 가능한 빨리 충분한 양을 생후 4시간 이내에 먹도록 하여 송아지가 스스로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부터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해준다.
- ③ 보조 사료는 소화가 잘 되도록 연한 양질의 건초를 충분히 급여하여 반추위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후 보통사료로 전환하고, 가능한 한 어미의 사료를 먹지 않도록 한다.
- ④ 분만 전 어미소에게 양질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면 어린송아지의 설사예방과 어미소의 수태율이 향상되지만, 어미 소에게 사료급여 수준이 부족하면 산유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분만 전후 어미 소의 사료급여에 유의한다.
- ⑤ 분만전 어미소와 분만후 송아지에게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선행되도록 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033-330-0617)

Q : 호흡기질환의 예방 및 치료방법은?

소 호흡기 질병은 전염성비기관염,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폐렴 등의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과 파스튜렐라성폐렴, 헤모필루스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성폐렴 등의 세균이 원인인 질병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 질병은 단일 질병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바이러스와 세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호흡기 질병의 발병요인으로는 송아지의 초유 섭취량 부족, 장거리 수송, 다두 사육에 따른 밀사, 환기불량과 보온관리 불량에 의한 추위 등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이 증가 할 수 있으며, 발병한 소의 콧물, 눈물, 분변 및 뇨 등의 배설물을 통하여 같은 축사에 있는 다른 소에게 전파된다.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호흡기 혼합백신(전염성비기관염, 바이러스성설사병,파라인플루엔자, 합포체성폐렴)을 3개월령의 송아지에게 1차 접종하고 4주후에 2차 보강 접종한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1~2회 접종을 하는데 9월경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송아지를 외부로부터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송 전에 항생제를 주사한 후 수송하고, 수송 후 안정이 되면 파스튜렐라성폐렴 백신을 접종한다. 축사 내에는 정기적인 청소와 환기로 암모니아 가스, 먼지, 습기 등이 없도록 하며, 밤낮의 기온변화가 심한 날에는 적절하게 보온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격리 수용하여 치료해야 하고 축사 내에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며 보온, 방풍 및 환기 상태를 재점검해야 한다.

또한 호흡기질환에 유효한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하는데 마이코틸, 세파계 항생제, 페니실린, 썰파제 등이 폐렴에 효과적인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증요법으로 거담제와 강심 이뇨제, 소염제, 해열제 등을 주사하는 것이 치료효율을 높일 수 있다. 치료 후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더라도 3일정도 연속 치료하는 것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우군 전체의 약 20~30% 이상이 호흡기질환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전체 우군에 항생제를 3~5일간 집단적으로 투약하여 감염되어 잠복기에 있는 개체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033-330-0617)

Q : 예방백신 접종 후에도 송아지 설사병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은?


송아지 설사병의 원인은 어미 소의 유질이 나쁘거나 과식 등에 의한 식이성, 바이러스·세균·기생충 등의 병원체 감염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감염 병원체는 로타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바이러스, 대장균, 살모넬라, 클로스트리듐, 콕시듐, 크립토스포리디움 등이 있다.

설사병 예방백신의 대부분은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이며, 일부에서는 대장균 백신이 혼합되거나 단독으로 함께 접종한다. 따라서 설사병 예방백신은 설사병을 일으키는 주요 병원체인 로타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 대장균 감염증을 예방하는 백신이므로 그 외의 설사병을 모두 예방할 수는 없다. 백신을 임신우에게 접종하였더라도 송아지가 분만 후 빨리 많은 양의 초유를 섭취하지 않으면 백신의 이행 항체가 적어 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설사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설사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보다 백신을 접종한 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의 치료 효과가 더 좋다.

그러므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분만 직후 어미소의 유방을 세척, 소독하여 병원체를 제거하며, 어미소의 유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여 사료를 증량하지 않는다. 송아지가 있는 칸은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고 주 1~2회 소독하여 병원체의 증식을 방지한다. 백신 접종 후에도 설사병이 발생되면 발생 시기, 설사 분변의 색깔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문의 :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033-330-0617)

※ 출처 : 축산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한우사육 100문100답집 (2019. 12., 국립축산과학원)



기초에 충실한 컨설팅으로 생산성 향상된 2세 경영농장

지엠디컨설팅

이번 호에는 2세 경영농장의 순차적이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농장의 기본관리를 튼튼히 다져서 농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킨 정읍시 N농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읍의 N농장은 40년간 H사장님이 일구어 놓은 토대 아래 2018년부터 그의 2세인 h사장님이 합류하여 더 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농장이다. h사장님은 본인의 짧은 경력 탓에 N농장의 성장이 더뎠는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컨설팅 사업신청을 하였고 매회차 열정적으로 컨설팅에 임하였다.

농장 진단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N농장은 150두 규모의 일관농장으로 가임암소는 70여두를 사육하면서 송아지를 생산해 자체 비육으로 연간 30여두를 출하하는 일관사육 농장이다. N농장의 컨설팅 전인 2018년 농장 성적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컨설팅 전(2018년) 농장 성적

| 번식우 성적 | | | | 비육우 성적 | | | |
|--------|--------|------------|--------------|-------------|--------|-------|-------|
| 번식률 | 번식간격 | 송아지 폐사율 | 송아지당 수정횟수 | 1+이상 출현률 | 출하월령 | 출하체중 | 등심면적 |
| 84.4% | 14.2개월 | 2.7% | 2.0회 | 37.6% | 31.9개월 | 758kg | 92.4㎠ |

N농장은 40년째 운영되고 있는 농장이다. 그러나 h사장님이 합류한 것은 이제 겨우 6개월 정도였다. 그는 H사장님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1회차 컨설팅 진행 당시 N농장의 진단결과를 보면 번식성적 중 번식간격이 14.2개월 내외로 전국평균 수준이나, 컨설팅농가 평균보다는 다소 부진하였다. 비육성적은 출하체중의 경우 전국평균 수준이었으나, 1+이상 출현율의 경우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1년차 컨설팅은 번식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선행되어야하는, 다르게 말하면 농장의 기초관리라 할 수 있는 ‘송아지 사양관리’와 ‘육성우 사양관리’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사업 2년차 컨설팅은 ‘비육우 전후기 사양관리 중점 사항’, ‘하절기 중점 관리 사항’과 같은 비육관리에 주목하여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는 송아지 성장주기에 맞춰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아직 농장 운영경험이 부족한 2세농가의 공감대를 이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 시작단계에서 농장의 실태를 정밀 진단하고 경영자와 심도 있는 인터뷰와 토론을 거쳐 번식·비육 각 분야별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계획을 <표2>와 같이 수립하였다.

<표2> 농장 문제점 도출 및 컨설팅 실행계획

| 컨설팅분야 | 문제점 | 목표 | 컨설팅 계획 |
|---------------|-----------------------------------|-----------------------------------|---|
| 번식관리 | 수태율 저하 | 번식우 BCS관리 송아지 이유체중개선 | 분만전후 사양관리 개선방안 제시, 번식우 BCS관리교육, 송아지 입붙이기 교육 |
| 비육관리 | 1+이상 출현률 | 1+이상 출현률 개선 | 하절기 사양관리 프로그램 단계별 사양관리 방안 제시 |
| 질병관리 | 송아지 호흡기 및 설사 관리 미흡 번식질병관리미흡 | 번식질병 예방 송아지 설사 개선 | 번식관련 질병 교육 송아지설사예방 집중교육 (약품 사용 방법, 관리방법 등) |
| 축사시설· 환경관리 | 축사관리 상태 미흡 | 쾌적한 환경유지 축사바닥, 수조, 환기등 적정관리 | 과학장비 활용 환경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 제시 축사환경 청결유지 교육 |
| 경영관리 | 경영관리 미흡 | 데이터 관리 실현 및 사업계획 구축 | 데이터 관리 방법 및 사업 계획 구축방법 교육 정기적으로 정보 제공 |

N농장의 번식우의 경우 벧짚과 IRG를 1:1로 교차급여하면서 배합사료를 3~4kg 정도 급여 유지한 결과 번식우의 BCS가 다소 높았다. 우선 사료 급여량을 조정함으로써 BCS 기초관리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며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다.

비육우의 경우 TMR의 단순 급여에만 의미를 두고 있어 전국평균 수준을 맴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리포인트는 비육전후기 꾸준한 섭취량 관리에 있다. 특히 하절기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안내하며,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농장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의논하고 제안하였다.

농장의 경우 2018년도 도체중이 455kg으로 당시 전국 평균 대비한다면 나쁘지 않으나 출하월령이 지연됨과 동시에 등심단면적이 92.4cm²로 전국평균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하절기 섭취량 유지가 이문제에 대한 해법이라 판단하고 컨설팅을 진행 하였다.

〈자료1〉 하절기 섭취량 유지를 위한 컨설팅 내용



수질 측정(경도측정, ppm)



PH 및 산소측정



TMR 섭취량 점검



열화상 카메라(복사 열측정)



포그머신 이용 환기점검



암모니아 측정을 통한 환기점검

번식관리, 개량관리 기초부터 차근차근 시작한 N농장은 번식성적의 개선으로 컨설팅 2년차인 2020년에는 2018년 대비 27두의 연간 송아지생산 증가를 이루어 냈으며, 번식성적개선을 통해 증가한 사육두수를 토대로 현재 번식우의 선발 도태가 이루어 지고 있다.

비육성적 개선

지속적인 TMR 섭취량 유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컨설팅이 2년차인 올해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표3>에서와 같이 무엇보다도 1+이상 출현율이 매우 상승하였다. 더불어 도체중도 2018년대비 32kg이나 증가하여 비육성적에 있어서 질적성장과 양적성장을 모두 이루어 냈다. 물론 육질등급 출현율의 상승은 등급제 변경의 영향도 있겠으나 N농장의 성적향상은 등급제 개편효과 이상임을 <표3>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표3〉 거세비육우 컨설팅 전후 주요 경제형질 성적 비교

| 항목 | 컨설팅전 (2018년) | 컨설팅중 (2020년) | 평균변화 |
|----------|---------------------|----------------------|------------------------|
| 1+이상 출현률 | 37.6% | 87.5% | 49.9%p증가 |
| 출하월령 | 31.9개월 | 31.5개월 | 0.4개월단축 |
| 평균 도체중 | 455kg | 487kg | 32kg 증가 |
| 근내지방도 | 5.4 | 6.9 | 1.5 증가 |
| 등심단면적 | 92.4cm ² | 107.3cm ² | 14.9cm ² 증가 |
| C등급 출현율 | 50.0% | 25.0% | 25.0% 감소 |

여기서 1+이상 출현률이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N농장의 H사장님이 40여 년간 운영하여 이뤄낸 유전형질이 어느정도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기도 함을 안내하였다.

h사장님은 H사장님과 농장운영과 관련한 견해 차이가 있어 종종 갈등을 겪으나, 1세가 닭아놓은 토대에 보다 좋은 성적과 수익성 추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 단계 크게 도약하고자 하는 N농장의 2021년이 더욱 기대된다.



소식 정보



01 “유럽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 강력 반대”

정부가 아일랜드·프랑스와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우리 협회에서는 강력 규탄 성명을 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모두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아일랜드와 프랑스는 ‘5단계(수입 허용 여부 결정)’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협회는 이번에 추진중인 아일랜드와 프랑스가 광우병 발생국임을 지적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 허용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0년대 유럽을 강타한 광우병 파동 당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기록한 나라다. 이후 2013년과 2015년에 재발생하고 최근인 올해 5월에도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다. 프랑스 또한 2011년과 2016년 재발된 국가로 양국 모두 광우병 발생이 빈번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브라질 쇠고기가 ‘비정형 광우병이라도 안전하지 않다’

고 수입을 중단한 바 있는데도, 수입허용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과 안전을 간과한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유럽산 쇠고기 수입시 한육우 영향분석에서 호주산 쇠고기와 품질동일시 10년후 한우산업생산액이 최고 32%까지 줄어들고 국내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2조 7천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을 냈다.

이렇듯 국민건강보호와 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로 농민들은 선대책을 마련한 후 수입개방 협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농민의 절규를 외면했다. 농식품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국가기관인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협회는 국민건강을 뒷전하고 자국산업 피해보호대책 없이 추진되는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결사반대한다. 수입을 추진할 경우 전농가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02 NS홈쇼핑, 가정간편식 등 한우 소비·판매 협력

우리 협회는 10월 2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우 소비·판매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수입산 소고기와 국내산 육우 제품이 대다수였던 소고기 가정간편식에서 탈피해 한우를 활용한 다양한 가정간편식이 개발·판매될지 기대된다.



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한우를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우 소비 활성화 및 HMR 시장에서 한우 간편식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한우 가정간편식(한우한마리곰탕·한우꼬리곰탕)은 1만4371세트(2173두)에 달한다. 양측은 또 한우 유통 판매에 대한 정보 교류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우 후계인력을 위한 장학금 기부식도 열렸다. NS홈쇼핑은 국내 한우 발전과 교육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5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김홍길 회장은 “그동안 TV 홈쇼핑에서 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는데, 한우로 다양한 제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한우는 아직 정육점과 대형마트가 아니면 구입하기가 힘들었는데 소비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상철 NS홈쇼핑 대표이사도 “NS홈쇼핑은 농수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편성시간의 60%를 농수축산물 관련 제품 판매에 할애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우 가정간편식이 보다 발전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3 제로페이 한우사랑상품권 인기 폭주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을 기념해 발행한 한우사랑상품권이 발행 2일만에 준비된 5억여원이 모두 소진되는 품절대란을 겪었다.

이에 앞서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10월 30일 본회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한우 소비 촉진 및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계기로 향후 추가 발행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시대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확산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발행되는 한우사랑 상품권은 100% 한우만 취급하는 전국의 ‘우리한우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 지원된 금액으로 5,000매를 발행했다.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탄생한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를 통해 우리 한우판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한우를 찾는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큰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한우판매점에 대한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한우소비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사랑상품권을 통해 국민들이 한우를 더욱 저렴하게 찾고 즐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우가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04 이두원 한우협동조합연합회장 사외이사 선임

이두원 한우협동조합연합회장 이본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2020년 제3차 이사회에서 김홍길 회장은 “이 회장은 1세대 한우협회 활동을 했고

도회장도 역임한 인물”이라며 “협회와 조합이 긴밀한 소통 속에 뜻을 같이한다면 한우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원 사외이사는 “한우협회와 한우조합연합회의 정책방향과 미래비전을 양 측에 전달하는 등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한다”면서 “협회와 조합이 뜻을 같이 한다면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원 사외이사는 특히 대기업 축산진출 반대에 열을 올렸던 인물이다. 이 이사는 “대기업이 축산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동조합연합회도 협회의 방향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두원 이사는 전 전국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 대전충남한우조합 조합장, 한우협회 부회장, 홍성군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우협동조합연합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05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삭제처리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단협 및 본회의 항의로 법안 발의가 취소되어 10월 말 개정안이 삭제처리됐다.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에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만 적용하였던 의무사항을 전국의 100 제곱미터 이상 축사에 대해 2회 기준 초과시 조업중지 명령을 하고, 모든 축산농가에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 수립 및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축산말살법안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본회에서 면담 및 강력 항의를 통해 법안이 삭제됐다.

정책지도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규제 관련법에 관심을 가지고 축산인에게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안내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06 홍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폐지 촉구

강원 홍천군의 주민 일부가 가축사육제한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을 군에 제출하면서 홍천군 축산 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천군 축산단체협의회장이기도 한 김상록 지부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 주민청원 반대 건의서’를 군에 제출한 것은 물론 18일 홍천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력 대응중이다.

개정 조례안 내용의 핵심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강화다. 현행 홍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도 환경부 지정 기준 권고안보다 강화된 조례인데, 더욱 강화된 조례 개정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으로 홍천의 축산 후계농 유입이 차단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김상록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장은 생사가 걸린 문제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해왔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가 축산 농가에 대한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만을 펼치지 말고 축산 농가들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07 음성군지부 대명에너지와 업무협약

음성군지부(지부장 김명길)는 지난 11월 12일 축산기자재업체 (주)대명에너지(대표이사 신상식)와 업무협약식 맺고 음성한우농가의 ICT 스마트팜 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범 충북도지회장과 김명길 음성군지부장, 중앙회 김영원 국장 등이 참석했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대명에너지는 회전문, 환풍기



등 대가축 축산기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축산기자재 업체다. 최근에는 ICT기술과 축산사육 수익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면서 태양광 설치와 ICT장비 연계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모델을 구축중이다.

김명길 지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회원농가들의 사육환경과 생산성 개선을 위한 많은 관심과 연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식 대표이사는 "축산농가와 함께 발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회사가 소재한 한우협회 음성군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한우농가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품질 제품 생산과 지원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08 영주시지부, 연탄지원 나눔 행사 진행

전국한우협회 영주시지부 (지부장 윤한세)에서는 지



난 11월 16일 오전 지부 임원및 농가주부, 영주시 축산과 이용춘 과장 등 지역사회 축산인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영주시지부에 따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1가구당 300장씩 총3,000

장)에 연탄을 지원했고 영주시의회 의원(이재형·우충무·전풍립)도 방문해 봉사 활동에 손을 보탰다.

윤한세 영주시지부장은 “한우를 키우는 우리 농가들의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라며, 도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09 특급 요리사가 만든 고급 한우 요리 유튜브 영상 공개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한우 요리를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 ‘특급 셰프와 한우가 만나면 생기는 일’편을 공개했다.

이번 유튜브 영상은 한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약 중인 김호윤 한우 전문 셰프가 출연해 한우의 다양한 부위와 요리법을 활용한 다채로운 프리미엄 요리들을 선보이며 더욱 주목을 끌었다.

특히 등심이나 불고기 같은 일반적인 부위와 요리법 외에도 양깃머리와 우설을 활용한 한우 특수부위 구이, 새우살을 이용한 한우 특수부위 훈연요리, 그리고 한우 안심을 활용한 한우 샌드위치 등 다양한 부위와 요리법들로 육향과 풍미가 우수한 우리 한우의 매력을 듬뿍 발산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한우로 구이말고도 저렇게 요리가 다양한 줄 몰랐다’, ‘너무나 맛있겠다’, ‘한우 풀 코스라니 상상도 못해봤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한우 요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0 한우자조금, 2020년 한우사랑 장학금 수여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2020 한우사랑 장학금 전달식’을 11월 3일 개최했다.

2018년에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지원하고 있는 ‘한우사랑



장학금’은 축산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 미래 한우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자조금의 주요 사업이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9월부터 약 한달 반 동안 전국 농/축산업계 고등학교 축산관련 학과 및 축산/수의 관련 대학(교) 학과 재학생들을 지역별로 나누어 모집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21명(고등학생 5명, 대학생 16명)에게 총 3,7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11 홍콩 ‘2020 레스토랑&바 박람회’에서 한우 우수성 알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0 레스토랑&바 홍콩(Restaurant and Bar HongKong 2020, RBHK)’



에 참가해 우리 한우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알렸다.

2002년에 첫 개최한 ‘레스토랑&바 박람회 홍콩’은 홍콩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박람회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적은 8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박람회를 찾았으나, 한우자조금 홍보부스에는 200여명의 바이어들이 한우 관련 전문 상담을 진행할 정도로 한우에 대한 인기는 매우 뜨거웠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2020 레스토랑&바’에서 한우를 현지에서 메뉴화 할 수 있는 ‘한우 스테이크’와 한우 불고기 파니니’를 시식메뉴로 선보이며 한우 맛의 우수성을 알렸다. 한우 메뉴를 맛본 방문객들은 감칠맛과 육즙이 풍부하다며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했다.

한우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여 가장 큰 수출시장인 홍콩에서는 프리미엄 소고기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

12 제주도지회, 제주케어하우스에 한우곰탕 나눔

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지난 11월 24일 도내 성인 중증 장애인 30명이 생활하고 있는 제주케어하우스(원장 이미정)를 방문해 500만원 상당의 ‘한우 한마리 곰탕’을 후원했다.



안석찬 제주도지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민 모두가 소외됨이 없이 건강한 겨울나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과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3 강원도지회 곰탕 전달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지회장 박영철)는 18일 도사회 복지회관에서 도내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한우곰탕(1800만원 상당)을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센터장 홍기종)에 전달했다.



14 울산시지회, ‘한우 맛 체험’행사 246kg 기증

울산광역시지회(지회장 정인철)가 지난 11월 23일 남구청을 방문해 ‘한우 맛 체험’ 행사로 사용해 달라며 950만원 상당의 한우고기 246kg을 전달했다.



정인철 지회장은 “울산 남구에서 울산시 구군 최초로 친환경급식사업에 울산지역의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한우납품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남구 주민과 학생들의 보답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니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 부구청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학교 급식 중단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한우협회에 감사를 전한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이런 사례들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5 전북도지회 “한우고기 드시고 코로나19 함께 이겨요”

전북도지회(지회장 정운섭)가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을 맞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한우고기 1,250kg(5,000만원 상당) 기탁행사를 가졌다.



전북도지회는 11월 1일은 한우농가들이 정한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로 이날을 기념해 사회공헌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위로와 힘이 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한우고기는 11월 말까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운섭 전북도지회장은 “이번 기탁식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더욱 한우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6 연천군지부 사랑의 한우 나눔실천

전국한우협회 연천군지부(지부장 왕병암)는 연천군청을 방문,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달라며 한우불고기 133kg(49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왕병암 지부장은 “한우먹는날을



맞아 연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자 후원물품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에도 나눔실천에 고맙고 소외계층 가정에 훈훈한 정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7 광양시지부 한우고기 나눔행사

광양시지부는 지난 11월 12일 시청에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광양산 한우고기를 기증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한우협회는 (재)광양



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400만 원 상당의 불고기용 한우고기 100kg을 기증했다. 기증받은 고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나눔복지재단 김재경 이사장은 “요즘 소비가 위축돼 한우농가 또한 어려울 텐데 이렇게 주위의 어려운 이웃까지 살피주셔서 감사하다”며, “오늘 전해주신 한우는 심사숙고해서 가장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열 광양시지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 한우고기를 맛보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가져 광양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힘쓸 계획이다”고 전했다.



(주)삼양애니팜 지속성 호흡기 전문치료제 “삼양톨라주” 출시



(주)삼양애니팜은 한 번 투여로 14일간 약효가 지속되는 호흡기 전문치료제 “삼양톨라주”를 출시했다.

트리아밀라이드(Macrolide-Triamilide) 계열의 톨라스로마이신을 함유하는 삼양톨라주는 투여후 기관, 기관지 및 폐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호흡기질환의 원인체인 마이코플라즈마, 홍막폐렴균 및 파스튜렐라균 등에 강력한 항균작용을 나타낸다.

아울러 백혈구 중 호중구와 대식세포의 염증조절반응에 관여하여 세포고사(Apoptosis)를 촉진하고 세포괴사(Necrosis)의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호흡기 염증반응을 줄여준다.

한 번 투여로 14일간 치료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질병 재발율이 플로르페니콜 단일제제나 티미코신제제보다 낮다. 또한 높아지는 농장 인건비를 감안할 때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임은 물론 주사를 맞는 환축의 주사 스트레스도 현저히 경감시킨다.

삼양톨라주는 주사제 전문업체인 (주)삼양애니팜의 50여년간의 축적된 주사제 기술이 집목된 제품으로 부드럽게 뽑히고 주사를 받는 가축이 느끼는 통증도 적다.

경기도 연천군에서 이유자돈군에 실시된

육성을 시험에서 삼양톨라주 투여군은 70일령까지 총678두 중 6두가 폐사하여 0.9%의 폐사율을 나타낸 반면 플로르페니콜 단일제제를 투여한 대조군은 총653 중 21두가 폐사하여 3.3%의 폐사율을 나타냄으로써 삼양톨라주를 투여한 돈군에서 2.4%의 폐사율 개선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삼양톨라주는 이유자돈의 호흡기질환의 발병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육성기의 질병 발생 위험 시기에도 돈군의 폐사율을 낮추고 증체율을 향상시켜 농장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양애니팜 관계자는 “삼양톨라주는 삼양의 주사제 노하우와 기술이 고스란히 녹아든 제품으로 강력한 지속 효과와 폐 염증반응 완화, 그리고 호흡기계 고농도 축적 효과를 지닌다.”며 농장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준은 물론 원샷 원킬의 효력으로 호흡기질환으로 고생하는 양축가들의 좋은 도우미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성사료

대한적십자 아너스클럽 가입

우성사료(대표이사 한재규)가 레드크로스 적십자 아너스클럽에 가입했다.

적십자 아너스클럽은 1억원 이상을 일시 또는 누적으로 5년 이내 납부를 예정한 개인 혹은 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우성사료는 금년 기록적인 장마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위해 1억원의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해당 자격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적십자 아너스클럽 대전세종 6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우성사료는 지역사회 상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2009년 우성라료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 금액이 10억원에 달한다. 우성은 창업 이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있다. 사료를 만들고 판매하는 일이 주된 기업활동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축산인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이밖에도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 밥 퍼주기, 연탄 나르기, 재해지역 복구활동, 코로나 19 극복 지원성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하고있다.

한재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에 힘쓰겠다”며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과 더불어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연탄배달 왔어요”

코로나19에도 이웃 나눔 실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국립축산과학원은 겨울을 맞아 16일 전북 완주군에서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직원 20명은 완주군 이서면 소재 저소득층 가구 2곳을 방문해 난방용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또한, 직원들은 방문 가구의 노후 전기시설을 수리하고, 환풍기를 교체하는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농촌진흥청 박범영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추워지는 날씨 탓에 움츠리기 쉬운 계절이

지만, 이웃 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 온기 가득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구제역 백신 국산화 추진

농림축산검역본부가는 한국형 구제역 백신 시제품을 생산하고 품질평가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국내 구제역 백신 공장이 건립되어 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구제역 상업화 백신의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백신연구시설(100ℓ 규모)을 이용하여 구제역 2가 백신(O형 보은주 + A형 연천주) 시제품을 생산했다.

구제역 O형 보은주와 A형 연천주는 국내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형 구제역 백신이라 할 수 있다. 구제역 O형 보은주는 국내에 유입 가능한 O형의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해서 광범위한 방어 효과를 나타내어 백신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Antiviral Research 2020년 9월호)에 게재됐다.

A형 연천주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A22 IRQ 백신과 동등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번 시제품 백신은 접종량을 2ml에서 1ml로 줄임으로써 접종 부위의 국소반응을 최소화하였으며,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백신의 부작용(근육 이상)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산 구제역 백신 개발의 현재와 미래’라는 심포지엄에서 검역본부 박종현 구제역백신연구센터장은 “국내 최초의 한국형 구제역 백신은 여러 지역형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범위가 넓고 우수한 면역원성을 보이며, 접종부위의 근육손상을 감소할 수 있는 기술이 더해져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산 백신보다 한층 개량된 백신으로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구제역 백신을 국산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할 정도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전국한우협회 전농가 회원 동의서

우리 한우 산업은 지금까지도 많은 난관을 극복 해왔지만 더 안정되고 보람된 생활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 시대를 맞아 시·군의 협회 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농가 혼자서 해결 할 수 없고 한우 농가 전체가 함께 할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가 전체가 전국한우협회의 회원이 되고 그 회비는 자조금 2만원 중에서 3천원을 협회비로 거출하여 지회·지부의 활동비로 사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한우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절 취 선

전국한우협회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동의서

본인은 한우자조금 2만원 중 3천원(한우자조금 17천원)을 전국한우협회비로 납부할 것을 동의하며, 약속대로 한우산업에 요긴하게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 | |
|----------|--|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연락처(휴대폰) | |

개인정보보호(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전국한우협회는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항목을 수집하고 있으며, 상기 가입서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고, 개인 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므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국한우협회 귀 중